

특별기획

익산시, 녹색도시 생활환경 조성

익산시가 도시·학교 숲, 가로수, 시내 경관녹지 조성 등 향후 10년 동안의 도시립 조성 계획과 중장기 관리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녹색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지난 12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익산시 도시립 조성·관리계획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익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 까지 총사업비 4,400만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2026년까지 도시·생활림, 가로수, 도시·학교 숲 등에 대한 10년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이 기본계획은 용역이 끝난 2017년부터 걷고 싶은 가로수길, 도시·학교 숲, 자투리땅 녹화, 도시립 등의 기능유형별 증진에 따른 수목 경관작업과 숲 조성 사업, 도시립 조성 등의 재해 예방과 복구에 관한 사항 수립 등에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립 등의 조성·관리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면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은 물론 푸른 숲의 녹색도시 조성 및 시민행복도시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새만금아카데미 구성에 강연

군산새만금아카데미는 성교육 전문가로 유명한 사단법인 푸른이우성 구성에 대표를 초청 '아름다운 성'이라는 주제로 오는 17일 오후 2시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특강을 진행한다.

특유의 입담으로 금기시되던 성 이야기를 양지로 끌어낸 구성에 대표는 2003년 '푸른 이우성'을 설립, 국내 성교육 전문가로서 강연활동을 하며 각종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저서로는 '내성은 건강해', '구성애의 빨간책', '유아 성교육', '니 잘못이 아니야', '구성애 아줌마의 초딩 아우성', '구성애 아줌마의 10대 아우성' 등을 출간했다.

구성애 대표는 "가장 효율적이고 살아 있는 성교육은 자녀가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해 부모가 반갑게 대답해 주는 것"이라며 "질문에 대한 답은 솔직하고 담백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강연은 수강생들이 사전에 작성한 다양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구성애 대표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된다.

아이들의 성장과 사회변화에 따른 성교육의 변화, 청소년들이 가지는 성적인 호기심과 반응에 대한 대처법, 자녀 연령대별 성폭력 예방법, 음란물 대처방법 등을 특유의 입담과 재치로 풀어낼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인제 양성과(063-454-260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올해 처음을 개최된 '군산야행(夜行)'이 한 여름밤 근대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는 추억을 선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군산야행, 기분 좋게 마무리

근대문화유산 체험할 수 있는 41개 다양한 프로그램 관광객들에 선보여

올해 처음을 개최된 '군산야행(夜行)'이 한 여름밤 근대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는 추억을 선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군산야행(夜行)'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개최한 문화행사로 근대역사문화유산이 밀집된 근대역사박물관과 원도심 일원에서 야로·야사·야화·야설·야경·야식·야숙 등 7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펼쳐진 이번 행사에서는 공군 군악대와 의장대의 거리퍼레이드와 개막식 공연을 시작으로, 근대문화유산을 즐기고 체험

할 수 있는 41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였다.

행사기간 동안 '신홍동 일보식 가옥', '동국사' 등 군산을 대표하는 17개소의 근대문화유적지와 문화시설이 야간까지 무료 개방됐다. 근대문화유적지 안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문화공연은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근대역사박물관에서 펼쳐진 독도·무궁화 특별기획전과 광복군을 주제로 한 체험프로그램은 관광객에게 일제강점기의 빼어난 수탈의 역사와 군산시민의 저항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특히 관광객들은 군산에서 위촉한 79명의 어린이·청소년 문화해설사들의 현장설명을 듣고 2km에 걸쳐 조성된 문화유산 등불거리를 걸으며 다양한 전시·공연·체험프로그램을 즐겼다.

김봉곤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군산야행을 통해 관광객들이 수탈과 항쟁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근대문화유산의 정취를 느끼며 미래의 희망을 되새겨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이 지속적인 문화콘텐츠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제3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로 운행

입주기업 근로자 대중교통 이용한출 · 퇴근 불편함 최소화

익산시 삼기면에 소재한 익산제3일반산업단지가 지난 7월1일자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로서 고시됐다.

시에 따르면 그간 투자협약체결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당초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 고시는 국토교통

부 소관이었지만 올해 1월26일 광역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됐다.

이번 고시는 업무 이관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 등에 따라 전라북도가 고시한 첫 사례다.

현재 28개 기업 1,2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내에 전세버스가 운행되면, 정시간 및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이 자유롭게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의 이직율이 감소돼 안정적인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시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을 위해 올 연말 정부합동공사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고용환경개선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재원의 90%를 국비로 지원받아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통근용 전세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한 사례로 향후 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7공수특전여단 하계 특전캠프 열어

중학생 이상 일반인 대상... 모형탑 강하·헬기 모형 레펠 등

특전사 예하 제 7공수특전여단은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중학생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6년 하계 특전캠프'를 열었다.

이번 특전캠프에는 전국에서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 남자 51명, 여자 69명 총 120명이 입소했다. 참가자들은 특전사 장병들이 실시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체험하며 '안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부대의 정신을 배우고 강한 인내심을 체득하게 된다.

특전캠프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제식훈련 및 유격체조 등을 비롯하여, 인간이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지상 11m 높이의 모형탑 강하와 헬기 모형 레펠, 낙하산 강하, 보트 릴레이, 서바이벌 사격, 야간숙영 및 취사 등의 훈련과 안보 현장 견학, 캠프 파이어, 장기 자랑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전캠프를 지도한 교육대대장 김동관 중령은 "한계에 도전하고, 그 한계를 더욱 넓혀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캠프 프로그램은 힘 들고 배고픈 극한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간식 없이

식사량을 철저히 통제한다. 특히, 특별 참가자로 청각장애 4급의 이정민(15) 학생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어렵게 참가한 이정민 학생은 "참여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강한 훈련으로 한계를 극복한다는 특전캠프를 통해 더욱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입소 소감을 밝혔다.

이밖에도 59세의 나이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겠다는 의지로 참여한 일반인 참가자 김중은(59)씨와 아버지와 아들이 동반으로 캠프에 참여한 이수홍(42), 이태왕(14)부자 등도 눈길을 끌었다.

특전캠프를 지도한 교육대대장 김동관 중령은 "한계에 도전하고, 그 한계를 더욱 넓혀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개최

2016년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제1차 정기회의가 지난 12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기회의는 지난 7월 16일 출범한 '2016년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들이 직접 진행한 첫 번째 회의로, 청소년의회는 오전에 어린이의회는 오후에 각각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시의회 본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의장 및 부의장 선출과 교육·복지·안전분야 3개 상임위원회별 위원 구성, 각 상임위원장 호선, 건의문 의결 등으로 진행됐다.

청소년 의회에서는 2016년 청소년 의회를 이끌 의장으로 김정운(중앙여자고등학교) 의원과 부의장으로 추성

원(진포중학교) 의원이 선출됐으며, 30명의 청소년의원들은 3개 상임위원회에 선임되어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다.

어린이 의회를 이끌 의장으로 김유노(푸른솔초등학교) 의원과 부의장으로 주성아(전주교대부설초등학교) 의원이 선출됐으며, 청소년의회와 마찬가지로 30명의 어린이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선임되어 분야별로 활동할 예정이다.

어린이 의회는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건의문'을, 청소년 의회는 '청소년 대상 교육의 다양화를 위한 건의문'을 안건으로 상정,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군산=문정곤 기자

**Seeseri Clean UP**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라"를 사용해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의 오랜 찌든때와 막힘
-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속속 하고 싶다면
-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님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 (주) 코포스

##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http://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http://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

### "씨서라" 실제 설치!

청소액 [박스]

1. 싱크대 배수통 / 배수구 안쪽에 찌든때를 제거합니다.

2. 싱크대 배수통 안쪽에 찌든때를 제거합니다.

3. 싱크대 배수통 안쪽에 찌든때를 제거합니다.

4. 싱크대 배수통 안쪽에 찌든때를 제거합니다.

5. 싱크대 배수통 안쪽에 찌든때를 제거합니다.

6. 싱크대 배수통 안쪽에 찌든때를 제거합니다.

7. 싱크대 배수통 안쪽에 찌든때를 제거합니다.

8. 싱크대 배수통 안쪽에 찌든때를 제거합니다.

9. 싱크대 배수통 안쪽에 찌든때를 제거합니다.

10. 싱크대 배수통 안쪽에 찌든때를 제거합니다.